“생명나눔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광주 남구청 사랑의헌혈 행사장 가보니

밀려드는 참여자에 기본 1시간 대기…56명 동참
혈액원, 하반기 감소 우려 있어 적극 참여 당부

“의미있는 행사에 동참해 혈액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줄 수 있어 뿌듯합니다.”

4일 오전 9시, 1년에 4번 광주 남구가 분기별로 진행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맞아 구청 8층 대회의실은 헌혈에 동참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했던 남구 공무원들은 헌혈장이 개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장했다. 이들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직원들의 안내 하에 전자문진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혈압 측정, 헌혈 상담 등을 거쳐 헌혈 자격을 얻은 뒤 대기 의자에 앉았다.

헌혈장 앞에 마련된 의자에는 혈액 기부를 위해 대기하는 인원으로 빈 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전 10시 기준 헌혈을 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 빈 걸음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

혈액원 관계자는 밀려드는 인원에 “1시간 가량 대기하셔야 합니다. 점심 드시고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라며 아쉬운 목소리로 달래기도 했다.

헌혈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학생 김민수(22)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피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의미있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혈액원 직원들은 접이식 테이블, 텀블러, 관절염 파스 등 헌혈을 마친 이들에게 선물을 한아름 안겨줬다. 빈혈 등 자격 미달로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됐다.

헌혈 침대에 오른 이들은 담요를 덮고 걷어올린 한쪽 팔을 간호사에 내보였다. “따끔해요”라는 간호사의 말에 긴장해 힘을 주다가도 연결된 호스로 피가 잘 흐를 수 있게 연신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이날 31번째 헌혈에 참여한 봉선1동 고영미(56) 동장은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라며 “건강한 피를 갖고 있어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또 방림1동 맞춤형복지담당 김영순(57)계장은 “아무래도 근무 중에 헌혈을 하기 위해 헌혈의 집에 가는 일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바빠서 하지 못했던 헌혈을 남구의 의미있는 행사를 통해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하고 나니 뿌듯하다. 이제는 헌혈을 시간날 때 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 행사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56명이 동참했다.

헌혈에는 공무원들 뿐만 아닌 시민들도 함께한 가운데 모두 전혈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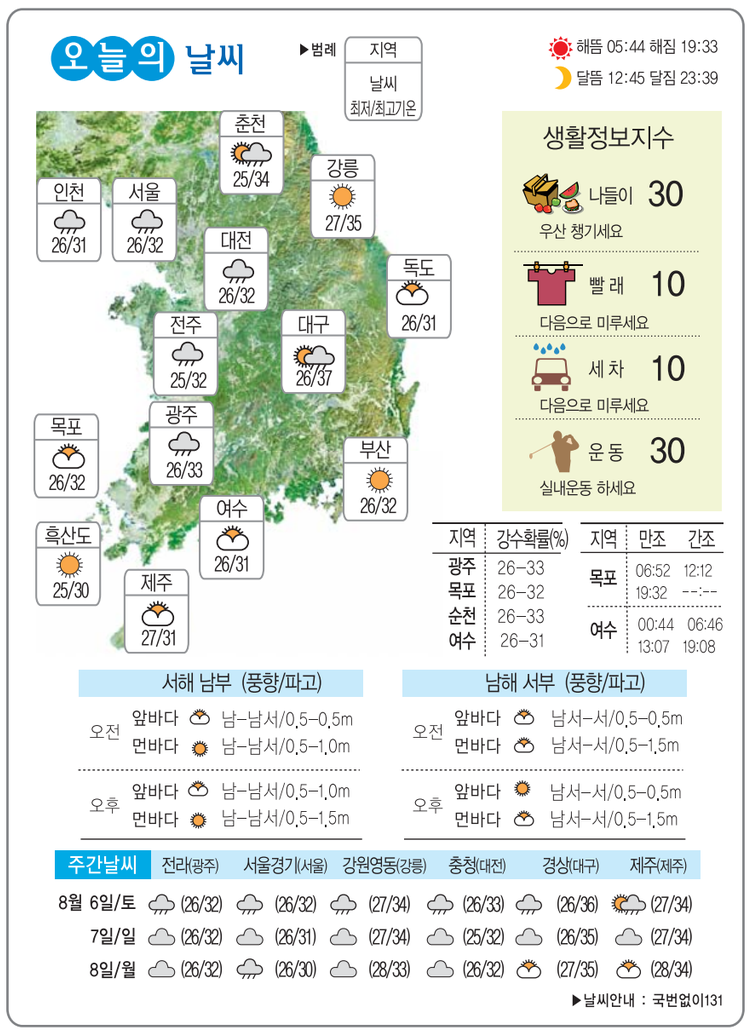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4일 자정기준 8.1일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적정 보유량 5일분을 3일분 가량 넘어선 것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증가세로 인해 지난달 18일 기준 10일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여유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약간의 감소세가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등학교, 대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하절기에 휴가철과 광복절 등 연휴를 맞이하면서 참여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헌혈자들이 급감하는 등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이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만 5세 조기 취학, 사회적 합의 도출 중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페이스북에 견해 올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4일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부가 취학연령 하향 방침을 발표했을 때는 쌩뚱맞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함마저 없지 않았다”며 “곧 발족하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이번 발표가 교육부 내 담당팀이 꾸려져 일정기간 숙고의 결과물도 아니라니 더 당혹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성장과 발육상태가 서로 다른 아이들을 현재처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몇 세에 입학시키느냐 보다도 입학 초기 성장발달의 개인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해답은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채만 기자

코로나 확진 학생도 수능 시험장서 시험 본다

교육부, 2023년 대입 관리 방향 발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지난해까지는 시험장이 아닌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를 한 바 있다. 또,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는 8월18일-9월2일, 수능은 11월17일, 수시전형은 9월18일-12월14일, 정시전형은 내년 1월5일-2월1일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수험생 128명이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렀으며, 확진 수험생 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

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을 말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며 감독관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지만, 청년층은 확진되더라도 보통 재택치료를 하는 만큼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한 시험실당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전남교육청 임용 합격 비율 여성 60%

전남도교육청이 4일 오전 ‘2022년도 제1회 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9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2천88명이 응시해 평균 10.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교육행정 129명, 사서 6명, 보건 10명, 등 총 199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79명(39.70%), 여자 120명(60.30%)이며,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남자 41명(31.78%), 여자 88명(68.22%)으로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 별로는 교육행정 직렬 20대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조리 직렬 응시자로 만56세, 최연소 합격자는 교육행정 직렬에 응시한 만2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만 기자

서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각광’

광주 서구가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소상공인 영업장의 소규모 시설개선과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연계해주는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에 86개소가 접수했다.

서구는 사업 필요성과 경영개선 효과성을 기준으로 음식점과 카페 24개소를 포함해 총 51개 업체를 선정, 약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소당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외부 간판 정비, 화장실 등 필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개선비와 함께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과 이자차액을 지원해주는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도 18억원의 대출가능액 소진이 임박했다. 서구는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공모사업 평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매일 매일 활기찬
여기는 송정매일시장입니다!

송정매일시장은...

선암 나루 근처의 선암장을 모태로 하는 송정장은 1920년대까지 광주전체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약 5천 여 명의 주민들이 오가며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송정5일장이 열리는 장터의 중심에 자리하며 상설시장의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광, 담양, 함평, 나주, 화순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송정매일시장은 광주송정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 인근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과 서남해안에서 온 싱싱한 해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농산물(미곡, 채소, 고추), 축산물(오리, 닭), 수산물(생선, 건어물), 공산품(철물, 그릇, 식료품, 의류, 신발), 음식점(국밥)등이 있다.

이용시간	07:00 ~ 19:00
휴일	첫째주/셋째주 일요일 (단, 5일장날 3/8/13/18/23/28일은 개장)
주차시설	212면 유료(15분당 200원, 시장 이용시 50% 할인)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광산구 문의 : 062)650-2099